



교육을 말하다

알프레드 아들러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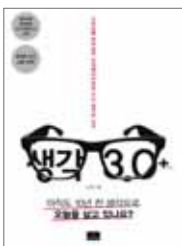
아이 발달은 부모하기 나름

오스트리아 출신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교육에 있어 심리학을 강조했다. 그는 개인의 성격 분석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이론을 견지했다. 이번에 나온 '알프레드 아들러, 교육을 말하다'는 아이는 무엇인든 배울 수 있고 아이의 발달은 부모와 선생이 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한다.

아들러의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이다.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그 사람의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은 가족과 친구, 공동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 연결은 동물과 식물, 무생물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들러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관련해 부모와 교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아이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사회적 감정을 키우도록 이끌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다. <부글북스·1만4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생각 3.0+

노경원 지음

열린 마음으로 세상 바라보라

이 시대 '생각'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창의력'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10년, 20년 사고 방식에 얽매어 '오늘'을 살고 있는 이들이 많다.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장을 거쳐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경원 씨가 펴낸 '생각 3.0+'는 스마트폰을 넘어 크리에이티브에 초점을 맞춘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거쳐 창조주의 시대로 진입한 21세기는 단순히 똑똑하기만 해서는 살아남기 힘들다. 색다른 발상으로 파괴력을 발휘할 만한 창의력을 길러야 한다. 오늘날 융합과 통섭은 시대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이런 시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바로 '열린 사고'와 '창의력'을 지녀야 한다.

'창의성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창의적 발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에 사고력을 연마할 필요가 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라보라.' <위너스북·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상실·부재의 아픔 위로하는 따뜻한 시선

저녁 식사가 끝난 뒤

함정임 지음



상실은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경험이다. 불완전한 인간은 상실, 고독, 사고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상실은 부재의 다른 이름이다. 마흔이 넘으면 '부고'는 더 이상 낯선 경험이 아니다. 부지불식간에 출몰하는 게 죽음이라는 실체다. 결국 인생은 누군가의 '부고'를 끊임없이 받는 과정 그 이상 이하도 아닌지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은 매우 성숙한 존재이기도 하다. 이 죽음과 '부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 터러 부재의 상실감을 잊기 위해,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나기도 한다. 어쩌면 만남과 사유는 상실을 경험한 이들을 위한 '위로의 만찬'인지 모른다. 어차피 삶은 여행이고 떠남이 아니던가.

작가 함정임(동아대 한국어문학부 교수)이 새 소설집 '저녁 식사가 끝난 뒤'를

펴냈다. 2009년 '목두'를 발간한 뒤 6년 만에 펴낸 작품집에서 작가는 '상실'을 위로하는 방식을 탐색한다. 소설 전편에는 부유하듯 흐르는 상실의 이미지가 드러내져 있다.

작품집에는 2012년, 2013년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에 실렸던 표제작 '저녁 식사가 끝난 뒤'와 '기억의 고고학-내 맥시코 삼촌'을 비롯해 8편의 단편이 수록돼 있다. 각각의 서사를 엮어내는 방식은 여행(떠남)을 통한 상실의 극복이다. 흥미로운 점은 작가 또한 '노마드'임을 밝힌 정도로 떠돌이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길 위의 작가'라는 수사와 잘 어울리는 작가가 바로 함정임이다. 그녀에게 여행과 삶은 별개의 항목이 아니다. 여행을 배경으로 작품이 잉태되고, 그 작품은 또 다른 여행을 견인하는 단초로 작용한다.

그 같은 맥락에서 보면, 작가가 소설 속 인물에게 부여한 '역마살'은 스스로가 세상을 떠돌았던 여정과 무관치 않다. 떠도는 자들은 운명적으로 타자와의 만남을 경험한다. 진실은 그 만남과 떠돌 속에서 짝 쓰는 흔적과 같다.

표제작 '저녁 식사가 끝난 뒤'는 프랑스 여행 중 접한 P선생의 부고 소식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P선생의 주선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저녁식사를 하며 -각자의 방식대로- 선생을 기억해낸다. 주인공 공순남은 식사를 준비하며 지나온 시간을 반추해낸다.

죽은 이를 떠올리며 전개되는 이야기



함정임의 '저녁 식사가 끝난 뒤'는 상실과 아픔을 꺼안는 위로의 시각이 담겨 있다. <문학동네 제공>

는 마냥 우울하지만은 않다. 노래와 시와 음식이 빛어내는 저녁의 풍경은 잔잔하다. 상실의 이미지를 감싸안는 작가의 긍정적이면서도 따뜻한 시선 때문이다.

이 같은 기조는 단편 '밤의 관조'에서도 동일하게 펼쳐진다. 주인공 유진은

첫사랑에게 버려진 아픔이 있다. 그녀는 세 번째 유산을 하고, 친구의 초대로 경주로 떠난다. 그녀의 내면에는 세월의 흐름만큼 아픔이 켜켜이 쌓여있다. 그러나 산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라는 인식의 끈을 놓지 않는다.

문학평론가 이소연은 "함정임의 소설

은 부재에 기대어 오랜 시간을 견뎌온 이들의 뒤에 대해 말한다. 내 상처가 그들의 것과 만날 때 느끼는 기쁨, 소설은 또한 그 찰나를 위해 마련된 사건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한다. 부재를 뚜렷한 현전으로 바꾸는 힘이 함 작가 소설이 놓인 자리라는 것이다.

작가 함정임의 문학은 여전히 '상실의 길' 위에 있다. 이 같은 '노마드'적인 기원은, 사실 작가의 경험을 일정부분 대변하는 측면이 있다. 프랑스문학을 전공한 저자는 스무 살 무렵, 어느 날 시인 폴 발레리의 '해변의 묘지'라는 장시를 읽다가 필이 꽃힌다. 시 말미의 유명한 절구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와 폴 발레리가 묻힌 묘지 인근의 해변 사진을 보며, 서른이 되기 전 반드시 프랑스에 가리라 다짐한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흘렀지만 함 작가는 여전히 여행과 삶을 포괄하는 생을 추구한다. 삶이 여행이고, 여행이 삶인 방식은 그의 작품 세계를 한층 풍요롭게 채워낸다. 그 여정의 중심에는 늘 상실과 아픔을 꺼안는 연민이 담겨 있다.

"어느 순간부터 소설쓰기란 추모의 형식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세상 어느 곳 어느 하나 불러보고 싶은 이름들이 있다. 미처 다가가지 못한 미처 풀지 못한 미처 주지 못한 그들에게 이 하찮은 소설 조각들을 바친다." <문학동네·1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천재화가의 가족 향한 그리움 오롯이



이중섭 편지

이중섭 지음

"흰색 물감이 없어서 페인트(제주도 시절처럼)를 대용으로 숙수 그리고 있어요. 제주도의 '돼지'처럼 아고리(이중섭 부인 남덕 씨가 남편을 부르는 애칭)는 엄청 힘을 내고 있어요. 참기 힘든 괴로운 가운데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육구가 일어나 작품을 마구 그려내고 자신감이 넘쳐... 넘쳐..." (1954년 1월

7일자 편지중에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이중섭(1916~1956). 내년이면 그가 태어난 지 100주년이자 타계한 지 60년이 된다. 그동안 그에 대한 연구서, 평전 등이 발간되었지만 대부분 지인들의 기억과 부실한 자료 탓에 온전히 그의 삶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번에 나온 '이중섭 편지'는 번역가 양영관이 새로운 감각으로 번역하고, 네 장으로 나눠 이중섭의 삶을 복원해냈다. 미술평론가 최석태가 편지들의 순서를 엄정 힘을 내고 있어요. 참기 힘든 괴로운 가운데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육구가 일어나 작품을 마구 그려내고 자신감이 넘쳐... 넘쳐..." (1954년 1월

원래 이중섭 부인이, 남편이 보낸 편지를 처음 공개한 것은 1970년대였다.

이 편지들은 1980년에 번역된 이래 독자들에게 꾸준히 읽히며 이중섭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다. 그러나 공개 당시, 발신일을 정리하지 않아 편지가 뒤섞여 버렸다. 순서가 영인 글은 이해하기 힘들었고 억측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번에 발간된 책에는 화가 이중섭이 전쟁과 가난으로 이별해야 했던 아내와 두 아들,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그림과 함께 실려 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시절, 환희와 절망의 삶을 살다 간 천재 화가 이중섭의 예술세계와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오롯이 묻어난다.

<현실문학·1만38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한국어'의 실체란 무엇인가



언어의 무지개

고종석 지음

"문명을 건설한 인간, 생각하는 인간은 말하는 인간이기도 하다."

언어학자 고종석의 두번째 선집 '언어의 무지개'가 출간됐다. 저자의 단행본 '검열된 언어' '말들의 풍경' '국어의 풍경들' '자유와 무니' 중에서 선집의 위상에 걸맞은 글 20편을 가려 수록한 것으로, 작가의 사유 세계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언어학 에세이를 엄선해 담았다. 고종석은 학술적 딱딱함도, 화려한 말장난도 아닌 적절한 균형의 지점에서 '언어란 무엇인가, 한국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나간다.

그 과정에서 영어와 한자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 이른바 '한국어'의 실체란 무엇인지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한 치밀한 논의를 펼친다. 또 표준어와 사투리, 외래어와 순우리말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치열한 투쟁의 양상을 살펴보고 모음체계의 변화와 심리형용사-부정문-시제 등 한국어의 다양한 풍경들을 세심하게 바라본다. <알마·1만65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시장
대전망과 서,남해안
미래가치 분석

서,남해안 부동산 투자

- 전남도청2차(오룡지구)
- 해남 산이면 위락도시(솔라시도)
- 해남 화원면 대우해양조선

투자가치 판단과 미래분석

궁금하세요?
정말 궁금하세요?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재테크 상담소 상담전화 ☎(062)576-7955

※ 현지 실전전문가 무료상담

이태리가구

명품소파

던롭침대

가구빌딩

홍스게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